

# “책의 해”에 해야할 근본 과제

## I

지난날의 가난과 억압의 민족적 한을 극복하고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향한 국가적 과업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생활의 물질적 풍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지고 살 수 밖에 없었던 정신적 풍요를 되찾아 보겠다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우리 고유의 문화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문화재의 복원, 우리 생활의 질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등 새롭게 싹트는 국민정서에 부응하여 정부는 문화부를 신설하였고, 1991년에는 “연극, 영화의 해”, 92년은 “춤의 해” 올해는 “책의 해”로 정하고 지난 1월 19일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라는 표어아래 책의 해 선포식을 갖은 바 있다. 이와같이 문화예술 부문의 한 장르를 한해의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정부의 지원하에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낙후된 영역을 수준급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일이다. 특히 올해의 책의 해는 일찌기 우리 조상들이 책의 가치를 숭상하였고, 책 속의 진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온 민족이었기에 국민적 기대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보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정보화사회라는 점에서 “책의 해”의 의의는 더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 속에서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된다.

(1) 책의 해 분위기 조성작업 : 상징물, 사업아이디어 공모, 현판식, 선포식, 기념출판, 매체별 특별시리즈 프로그램 등

(2) 독서하는 사회기풍 조성사업 : 독서교육,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책 보내기 운동, 서지정보 안내기능 확대, 각종 도서전시회, 교도소 및 고아원에 책 보내기, 저자와의 대화, 독서진흥법 제정, 도서 소포우편제도 개선 등

(3) 출판진흥기반 구축사업 : 출판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현안별 워크샵, 유통구조 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자출판물의 출판개념 정립 등

(4) 한국출판의 세계화 사업 : 국제 심포지엄, 한국 금속활자 특별전시회, 서울 도서전의 세계화 추진, 영문판 한국도서목록 제작, 구소련·중국동포에게 책보내기 운동 등

(5) 책의 인식제고 사업 : 책과 연관된 유적지·사적지 찾기, 책의 역사를 찾아가는 여행, 책의 문화총서 간행, 한국출판 1300년전,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와의 만남의 전시 등

(6) 관련사업 특별사업 : 인쇄기술, 책 디자인, 종이 등 특별전시

이상 열거한 책의 해 사업계획에는 상당부분 공감 가는 중요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업을 위한 사업 또는 한해로 끝나버리는 일회용 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출판계의 상업성 내음이 풍긴다는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다.

## II

무엇보다도 책의 해를 맞는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과연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책과 더불어 평생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우리 모두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책 읽기를 즐겨하고, 책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자기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책 읽기가 생활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실진단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들이 “책의 해”를 계기로 정부의 장기적인 국가정보정책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시말해서 책의 해의 사업들이 1993년 한해로 끝나버리고 영원히 잊혀지고 마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라는 책의 해 표어는 훌륭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열기위해 펴 책이 없다는 것, 펴 책이 가까이에 없

다는 것, 또 책을 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 무슨 책이 미래를 열어줄 좋은 책인지 모른다는 것 등이 근본적인 문제로 진단되고 있다.

책은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어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992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인구 16만명 당 1개관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만6천명 당 1개관으로 이수치는 이미 10년전의 통계인 것이다. 문제는 읽고 싶은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고 있는 주민이 극히 드물다는 데에 있다.

주민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공공도서관에는 미래를 열어 줄 책들이 가득차 있어야 한다. 1992년 현재 전국 267개 공공도서관의 연간 운영예산은 6백72억5천1백25만6천원에 달하고 있지만 책 구입비는 이 가운데서 겨우 6.1%에 불과하며, 책구입비가 연간 5백만원 미만의 공공도서관이 105개관으로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다는 경악할 우리의 실정이다. 국민 1인당 0.15책도 못되는 현실속에서 우리 국민은 미래를 열기 위해 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보기 어려운 불행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책은 곧 삶의 질을 끌어 올려주는 소중한 동반자”라면 책읽기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은 어릴때부터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중고등학생 때의 학교도서관 이용교육과 독서교육을 특별히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1992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연간 이용책수는 초·중고생 1인이 1.9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학생들은 1년 평균 2.8책을 읽는 반면 일본의 국민학생은 1년 평균 1백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가구당 1년에 걸쳐 책을 사는데 쓰는 돈은 1만원 정도이고, 성인 1백명 가운데 60명이상이 한달에 책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이용현황(1992년)을 보면 공공도서관을 찾아온 2천6백만여명이 실제로 이용한 책수는 1천7백만여권에 불과하다. 이들 통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전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책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자기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는 어떤 책이 각자의 정서와 교양에 유익한 좋은 책인지, 또 어떤 책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좋은 책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출판계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발행 종수는 2만4천여종으로 발행부수로는 1억3천만여부에 달하는 세계 10위권내의 출판대국에 속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73%가 중·고등학생 학습참고서나 유아용 그림책 및 어린이용 전집류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일부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도 신뢰성이 부족한 점과 베스트셀러라는 광고적 기호가 독자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 III

“책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수를 더 늘려야 하고, 공공도서관에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책을 보다 많이 소장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를 대폭 올려야 하며, 책을 즐겨 읽는 습관이 평생을 통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과 좋은 책으로 가득차 있는 학교도서관의 이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사서교사의 육성과 배치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책의 전국적인 활용을 위해서 도서관정보전산망 구축이 완성되어야 하며, 온 국민이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우수도서 선정목록이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전문단체에서 평가되어 나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책의해 조직위원회는 '93년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용사업보다는 학교도서관법의 제정, 독서장려 및 도서관자료구입비 지원의 의무화를 위한 도서관진흥법의 보완, 조세감면법, 공무원임용법, 저작권법,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한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등 근본문제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93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이 “책의 해”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두영/중앙대학교 교수)